

표 5. 부모와의 애착특성과 부모됨의 동기 및 부모역할인식 간의 상관관계

		정서적 동기	전통적 동기	혈연 유대적 동기	부모됨의 동기총점	사회성 발달 도모	인지 발달 도모	정서적 안정감	규범 교육	신체 발달 도모	위생 상태 점검	생존 능력	건강 관리	물리적 환경	정서적 욕구 다루기	사회 생활 참여	가족 공동체 의식고취	부모역할 인식총점
어머니 애착 특성	안정 (따뜻함)	.20***	.10*	.16**	.19***	.14**	.19***	.16**	.23***	.16**	.20***	.12*	.13**	.16*	.23***	.12*	.21***	.21***
	회피 (거부적)	-.17**	.01	-.06	-.09	-.20**	-.21**	-.20**	-.23**	-.20**	-.18**	-.11	-.20**	-.12*	-.27**	-.11	-.21**	-.23**
	저항 (비일관적)	.02	.020	.05	.04	-.02	-.16**	-.08	-.12*	-.06	-.08	-.06	-.04	-.07	-.13**	-.04	-.10*	-.10
아버지 애착 특성	안정 (따뜻함)	.25***	.13*	.19***	.23***	.13**	.18***	.14**	.17**	.13*	.15**	.14**	.11*	.17**	.14**	.12*	.23***	.19***
	회피 (거부적)	-.16**	.00	-.12*	-.12*	-.21***	-.20***	-.15**	-.22***	-.13**	-.15**	-.11*	-.14**	-.12*	-.22***	-.12*	-.24***	-.20***
	저항 (비일관적)	-.03	-.01	.07	.01	.01	-.07	-.06	-.03	.02	-.05	-.04	.01	-.06	-.02	-.03	-.11*	-.05

* $p < .05$. ** $p < .01$. *** $p < .001$.

대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부모됨의 동기 및 부모역할인식에 관한 연구*

정 옥 분¹⁾ 임 정 하²⁾ 정 순 화³⁾ 김 경 은⁴⁾ 박 연 정⁵⁾

고려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 및 수도권에 소재한 4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407명(남학생 209명, 여학생 198명)을 대상으로 부모됨의 동기와 부모역할인식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대학생들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부모됨의 동기 및 부모역할인식 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Hazan과 Shaver(1987)의 아동기 내적표상척도, 유계숙과 정현숙(2002)의 부모됨의 동기척도, Gilbert와 Hanson(1983)의 부모역할책임감 인식척도를 사용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Cronbach의 α 계수, 평균, 표준편차, One-Way MANOVA, 다중판별분석, Pearson의 직률상관분석, 정준상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성별에 따라 부모됨의 동기와 부모역할인식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들은 전통적인 동기에서 부모가 되고자 하는 동기가 강하고, 부모역할로서는 신체발달도모를 중요시 여기는 반면, 여학생들은 남학생에 비해 부모역할로서 물리적 환경 제공, 자녀의 인지발달 도모 등을 높게 인식하였다. 또한, 부모됨의 동기는 부모역할인식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안정애착특성은 부모됨 및 부모역할인식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와의 회피애착특성과 저항애착특성은 부모됨 및 부모역할 인식의 몇몇 하위요인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준상관분석결과, 어머니와의 회피애착특성, 안정애착특성, 아버지와의 회피애착특성, 안정애착특성이 부모됨의 동기 및 부모역할인식을 잘 예측할 수 있었고, 특히 부모역할에서의 정서적 욕구 다루기, 규범교육, 가족공동체 의식 고취, 사회성 발달 도모, 인지발달도모, 부모됨의 정서적 동기를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부모됨, 부모역할, 내적표상, 애착, 예비부모교육

* 본 연구는 2008년 서울시 여성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1)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고려대학교 사회정서발달연구소 소장

2)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3)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4) 교신저자 : 고려대학교 사회정서발달연구소 연구교수(E-mail : leejay48@chol.net)

5)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전통사회에서는 결혼을 하여 부모가 되고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사회변화는 부모됨의 동기나 부모역할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핵가족화와 소가족화 현상, 여성취업률의 증대, 이혼율의 증가와 같은 사회적 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부모됨이나 부모역할에 대해 높은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모역할은 필수적이라기보다는 선택적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정옥분, 정순화, 2007; Neal, Groat, & Wick, 1989; Secombe, 1991). 부모역할이 선택적이라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갖는데 있어서 비용과 효과, 즉 손실과 이득을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율이다. 저출산율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이는 바로 부모됨에 따른 손실과 이득을 고려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 개인이 부모됨이라는 주요한 발달적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많은 변화를 유발한다. 부모됨(parenthood)이란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물리적·심리적 돌봄뿐 아니라 경제적인 비용까지 포함하는 것이다(Rindfuss, 1991). 부모가 된다는 것은 한 개인으로서 보다 성숙한 단계에 이르는 것으로, Erikson(1968)은 부모됨이라는 성인기의 발달과업을 생산성의 개념으로 설명하였으며, 성인기에 이르러

부모가 되어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과정을 통해 이타심과 책임감과 같은 특성을 발전시켜 나간다고 하였다(Neal et al., 1989). 이처럼 부모됨이 개인의 전생애 발달에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직업적 성취나 경제적 혹은 심리적인 득실을 고려하여 부모됨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됨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중요성, 가치를 깨닫고 이에 대해 미리 준비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청년기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이성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시기로, 이 시기 동안 청년들은 결혼이나 가족에 대해 보다 진지하게 생각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됨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청년들은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거나 어떤 이유에서 부모가 되고 싶은지, 부모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바람직한 부모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들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부모됨과 부모역할에 대한 국내연구(김은주, 2006; 유계숙, 정현숙, 2002; 유안진, 신양재, 1993; 정은숙, 2002)들은 주로 미래의 부모됨이나 부모역할에 대한 준비보다는 부모기에 대한 인식, 부모됨의 동기 및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의 실태에 초점을 둔 것이 대부분이다. 이는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나이가 차면 결혼을 해야 하고, 결혼을 하면 부모가 된다는 것이 당연한 통과의례처럼 여겨지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필요하다거나 중요하게 여겨

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이유로 미래의 부모됨이나 부모역할의 준비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들도 주로 이에 대한 인식이나 실태조사에 그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저출산율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부모됨의 동기(Friedman, Hechter, & Kanazawa, 1994),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한 가치나 태도에 대한 연구(Callan & Gallois, 1983; Fawcett, 1988; Groat, Giordano, Cernkovich, Pugh, & Swinford, 1997; Langdridge, Connolly, & Sheeran, 2000; Langdridge, Sheeran, & Connolly, 2005; Neal et al., 1989; Schoen, Astone, Kim, & Nathanson, 1999)들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또한 결혼한 부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부모됨의 동기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젊은 부모들은 그들의 부모세대에 비해 개인적 자유, 합리적 선택, 유희적 가치관을 보다 더 강조함에 따라 자녀에 대한 전통적이고 규범적인 가치관은 점차 약해지고 개인적 수준에서 감정적 측면이나 실용적인 관점을 보다 강조한다(Neal et al., 1989). 또한, 과거에는 가계를 계승하거나 노동력의 생산 차원에서 부모가 되기를 원했다면 최근 들어서는 부모가 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일차적인 집단 유대감(primary group ties)과 사랑을 주고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Langdridge et al., 2000; Langdridge et al., 2005).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자녀를 가짐으로써 갖게 되는 최대의 이득은 ‘진정한 가족의 형성’과 ‘애정의 근원’이라고 하여 자녀는 가족원 간의 유대감을 높이는 데 있어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자녀를 갖게 될 때의 최대의 손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부담과 부모의 직업성취에 방해가 된다는 점이었다(Gerson & Berman, 1991; Lampic, Svanberg, Karlström, & Tydén, 2006; Neal et al., 1989).

이러한 부모됨의 동기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에는 같은 성(姓)을 가지므로, 관계유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즐겁기 때문에 자녀를 갖고 싶다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은 여자이기 때문에 자녀를 갖고 싶다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자녀를 갖고 싶지 않은 이유에 대해 남성은 배우자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지므로, 정서적 부담감, 직업에 방해가 되므로, 책임감과 인내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반면, 여성은 남편이 바라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Langdridge et al., 2005; Secombe, 1991). 부모됨의 동기뿐만 아니라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 비해 전통적인 관점에서 부모가 되고자 하는 동기가 강하다(김은주, 2006; 유계숙, 정현숙, 2002; Neal et al., 1989). 부모역할 인식과 수행에서도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비해 책임감을 더 높게 인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더 많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나종혜, 2005). 이같은 성별에 따른 부모됨의 동기나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여성취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자녀양육에서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주요원인으로 작용하므로, 이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한편, 부모역할은 부모라는 지위를 접한 개인에게 주어지는 권리와 의무의 총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시대적 혹은 사회적 변화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과거에는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이 뚜렷이 구분되어 있었다면 현대에 들어서면서 부모 간의 역할구분이 적어지고 자녀양육에 있어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또한 부모 역할이 단순히 자녀의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을 넘어서 자녀의 인지발달, 사회정서발달 등 전반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으로 확장되고 있다. 문화권마다 부모역할에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Levine(1988)은 다양한 문화권에서의 부모역할을 생존의 목표, 경제적 목표, 자기실현의 목표라는 세가지 목표로 제시하였고, 부모역할은 자녀의 신체적인 안전과 관련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에서 출발하여 궁극적으로는 정신적으로 독립적이고 자유의지를 가진 한 개인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하였다.

이러한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을 과거에는 대가족이 함께 모여 살면서 어린 동생을 돌보거나 조카의 성장과정을 지켜보면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현대의 부모들은 그러한 기회를 갖지 못하여 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또한, 전통적으로 자녀양육을 담당하던 여성들이 직업을 갖게 됨에 따라 자녀양육의 역할을 전적으로 담당하기가 힘들며, 남성이 그러한 역할을 보완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자녀

양육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자녀양육에 관한 지식의 부족은 자신감의 부족으로 이어지고 사회적 지지망의 부족은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부모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부모역할을 통해 만족감을 얻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부모가 되어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기쁨과 사랑은 인생에서 다른 어느 것보다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이러한 부모됨이나 부모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초점을 두었다(김은주, 2006; 유안진, 신양재, 1993; Groat et al., 1997; Langdridge et al., 2005; Rindfuss, 1991; Secombie, 1991). 부모됨이나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에는 부모 자신의 특성, 사회인구학적인 변인, 다양한 사회적 환경요인들이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근원가족에서의 부모와의 관계는 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부모와 회피애착을 형성한 남녀 대학생들은 부모가 되기를 원하는 동기가 낮았으며, 만약 자신들이 부모가 된다면 보다 엄격한 훈육을 하고 자녀들과는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하거나 사랑을 느끼기 힘들 것 같다고 보고하였다(Rholes, Simpson, Blakely, Lanigan, & Allen, 1997). 그리고 회피애착을 형성한 성인들은 친구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힘들어 하였으며(Wilson, Simpson, & Rholes, 2000) 심지어는 애인들에게도 적절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지 못하고 애인들과 사귀는 기간도 상당히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Feeney & Collins, 2004;

Schmitt, 2005). 이는 부모와의 아동기 애착관계가 이후 성인기에 친밀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부모됨이나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van IJzendoorn(1992)에 따르면 어린 시절 자신의 부모와 안정된 관계를 형성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자녀와도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고 보다 지지적으로 자녀를 양육한다고 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불안정 회피 애착을 형성한 성인은 그들 자녀에게 덜 지지적이고 몹시 엄격하며 자녀들과 정서적인 괴리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Rholes, Simpson, & Blakely, 1995; Rholes et al., 1997; Rholes, Simpson, Campbell, & Grich, 2001; Rholes, Simpson, & Friedman, 2006). 근원가족에서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은 성인기에 자녀를 학대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Muller, Hunter, & Stollak, 1995), 자신의 부모와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어머니들은 안정애착을 형성한 어머니보다 영아의 행동에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자녀의 감정표현을 방해하는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진미경, 2008). 이러한 연구들은 어린 시절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이후의 부모됨이나 부모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부모와의 애착과 이후 개인의 적응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George, Kaplan, & Main, 1985; van IJzendoorn, 1992)은 각 개인을 특정한 애착유형으로 분류하고, 애착의 유형별로 개인의 적응능력을 살펴보고 있다. 즉,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유형에 속하는지, 회피유형 혹은 저항유형에 속하는지에 따라 이후 개인의

적응능력에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상이한 관점에서 여러 연구자들은 특정 애착유형으로 분류된 개인이 언제나 명확히 한 가지 애착특성만을 보이는 것은 아니며, 동시에 안정애착특성이 반드시 적응적인 것이며 회피애착특성이나 저항애착특성이 반드시 부적응적인 유형인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개인의 부모와의 애착관계를 어느 특정 유형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나아가 일반적으로 부적응적이라고 보는 회피유형의 특성이나 저항유형의 특성도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서는 적응적인 특성으로 간주될 수 있다(Fonagy, 2001). 따라서 최근에는 부모와의 애착을 유형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차원으로 살펴보는 연구들(강진경, 최혜경, 2001; Collins & Read, 1990)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개인의 애착을 자녀가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에서 지각한 안정특성, 회피특성, 저항특성의 차원으로 접근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미래에 부모가 될 청년들의 어린 시절 부모자녀관계의 질과 부모됨 및 부모역할인식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부모가 된다는 것에 대한 준비가 왜 필요하며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한다. 즉,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이 부모가 되기 이전에 예비부모교육을 통해 부모됨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 보다 준비된 부모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비부모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연구문제

1. 대학생들의 부모됨의 동기와 부모역할인식의 전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2. 대학생들의 부모됨의 동기와 부모역할인식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3. 대학생들의 부모와의 애착 하위변인군과 부모됨의 동기 및 부모역할인식 하위변인군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및 수도권에 소재한 4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432명이다. 청년기는 이성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 결혼이나 부모됨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기로 이 시기의 미래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계획은 이후의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므로 대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실 기재한 25명의 자료를 제외한 407명의 자료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이중 남학생이 209명, 여학생이 198명이었고 연령의 범위는 만 18세~27세이다.

2. 측정도구

부모에 대한 애착

부모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Hazan과 Shaver(1987)의 아동기 내적표상척도(The Perceptions of Parenting Caregiving Style)를 사용

하였다. 본 척도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특성에 대한 회고식 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아동기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내적 표상은 안정 애착특성, 저항애착특성, 회피애착특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정애착특성은 부모와의 관계를 따뜻하고 반응적인 것으로 지각하는 것을 의미하고, 저항애착특성은 부모와의 관계를 양가적 혹은 비일관적인 것으로 지각하는 것을 의미하며, 회피애착은 부모와의 관계를 차갑거나 거부적이라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아동기에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그에 해당되는 부모의 양육특성에 대한 지각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타당도는 다른 애착 척도와 상관성을 통해 입증되었고(Collins & Read, 1990; Hazan & Shaver, 1988)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9로 나타났다(Hazan & Shaver, 1988).

부모됨의 동기

부모됨의 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유계숙과 정현숙(2002)의 부모됨 동기 척도를 기초로 본 연구자가 요인을 재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유계숙과 정현숙(2002)은 기존의 부모됨 척도를 기초로 하여 부모됨 동기 척도를 개발하였으며 요인분석을 통해 총 5가지 요인(혈연적 유대강화 동기, 전통적·규범적 동기, 이타적·정서적 동기, 부부결속적 동기, 영속적 동기)을 추출하였고, 이들 5개 요인은 변량의 약 5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연구를 통해 부모됨의 동기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살펴본 결과, 요인분석을 통해 부모됨의 동기가 3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이들 3개 요인¹⁾(정서적 동기, 전통적 동기, 혈연유대적 동기)은 변량의 52.1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동기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인생에서 의미가 있고 위안이 되며 개인의 정서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부모가 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하고, 전통적 동기는 사회나 집안의 유지 및 계승과 성인으로서의 사회적 인정을 받기 위해 부모가 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혈연유대적 동기는 자녀를 통해 혈연 강화 및 애정과 유대감을 갖고자 부모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5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됨의 동기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Cronbach's α 계수는 .89이고 하위요인별 Cronbach's α 계수는 .82~.91이다.

1) 유계숙과 정현숙(2002)의 척도를 재요인분석해 본 결과, 4요인 이상으로 묶을 경우 한 요인별 문항이 2개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요인으로 묶기에 부적절하였기 때문에 3요인으로 나누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5요인 중 이타적·정서적 동기와 부부결속적 동기 문항들은 '정서적 동기' 요인으로 묶였고(eigen value는 6.31, 설명분산은 32.23%), 전통적·규범적 동기와 영속적 동기 문항들은 '전통적 동기' 요인으로(eigen value는 3.27, 설명분산은 12.29%), 혈연적 유대강화 동기는 '혈연유대적 동기' 요인(eigen value는 1.70, 설명분산은 7.5%)으로 묶였다. 요인부하량은 .391~.908로 나타났고, 세 요인간 상관은 .14~.35로 나타났다. 아동학 전공교수 2인으로부터 요인명명에 대한 적절성을 검증받았다.

부모역할인식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Gilbert와 Harris(1983)의 부모역할 책임감 인식 척도(Perception of Parental Role Responsibilities Scale)를 방은령(1986)이 변안·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PPRRS에는 부모역할영역이 크게 교육, 기본적 욕구, 중재역할로 구분되어 있다. 교육영역에는 인지발달 도모, 정서적 안정감 제공, 사회성발달 도모, 규범교육, 신체발달 도모, 위생상태점검, 생존능력 신장 요인이 포함되고, 기본적 욕구영역에는 건강관리, 물리적 환경 제공, 자녀의 정서적 욕구 다루기 요인이 포함되며, 중재역할영역에는 자녀에 대한 보호, 사회생활참여, 가족공동체 의식 고취 등의 요인이 포함된다. PPRRS는 원래 13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자녀에 대한 보호 요인의 문항 내용이 우리나라 문화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 제외시켰다. 본 척도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위해 아동학 전공교수 3인과 아동학 박사과정생 2인에게 의뢰하여 문항 수정작업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12요인 각 4문항씩을 포함하여 총 48문항으로 구성된 것을 이용하였다. 본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Cronbach's α 계수는 .88은 하위요인별 Cronbach's α 계수는 .81~.93이다.

3.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부모됨의 동기 및 부모역할에서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가 대학생들

의 부모됨의 동기 및 부모역할인식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2008년 4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 대학생 115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의 적절성과 부모됨 동기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이나 적절치 못한 문항을 수정하였으며 본조사 실시 시 유의해야 할 점들을 체크하였다. 본조사는 2008년 4월 28일부터 5월 9일까지 이루어졌고,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된 질문지를 서울 및 수도권 소재 4개 대학교의 대학생 4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부실기재된 것을 제외하여 총 407명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4. 자료분석

부모됨의 동기와 부모역할에 대한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였다. 성별에 따라 부모됨의 동기하위요인군과 부모역할인식 하위요인군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One-Way MANOVA를 실시하였으며 추후검증으로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대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부모됨의 동기 및 부모역할인식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이용하였으며, 부모에 대한 애착의 하위요인군과 부모됨의 동기 및 부모역할인식의 하위요인군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정준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들 자료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학생들의 부모됨의 동기와 부모역할인식의 전반적인 경향

대학생들의 부모됨의 동기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대학생들의 부모됨의 동기를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혈연유대적인 동기($M=3.57, SD=.84$)와 정서적 동기($M=3.45, SD=.77$)에 비해 전통적 동기($M=2.23, SD=.74$)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됨의 동기에서 전반적으로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부모됨의 동기의 평균과 표준편차

	부모됨의 동기					
	정서적 동기		전통적 동기		혈연유대적 동기	
	M	SD	M	SD	M	SD
남	3.48	.75	2.36	.74	3.60	.85
여	3.42	.80	2.11	.71	3.54	.83
전체	3.45	.77	2.23	.74	3.57	.84

대학생의 부모역할인식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대학생들은 부모역할 중 자녀의 정서적 욕구 다루기를 가장 높게 평가하였고 자녀의 사회생활참여를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부모역할인식에서는 전반적으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부모역할인식의 동기의 평균과 표준편차

	남		여		전체	
	M	SD	M	SD	M	SD
사회성발달도모	4.35	.62	4.41	.62	4.38	.56
인지발달도모	4.22	.55	4.37	.54	4.29	.60
정서적안정감	4.20	.64	4.32	.63	4.26	.60
규범교육	4.30	.62	4.39	.50	4.34	.54
신체발달도모	4.36	.78	4.26	.67	4.32	.67
위생상태점검	4.14	.73	4.28	.65	4.21	.65
생존능력	4.04	.78	4.11	.60	4.08	.64
건강관리	4.15	.69	4.24	.58	4.26	.98
물리적환경	4.02	.60	4.19	.59	4.11	.68
정서적욕구 다루기	4.55	.69	4.68	.58	4.65	.81
사회생활참여	3.85	.68	3.93	.62	3.90	.64
가족공동체의식고취	4.17	.66	4.24	.63	4.22	.64

2.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부모됨의 동기와 부모역할인식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부모됨의 동기

대학생들의 성별에 따라 부모됨의 동기 하위요인군에서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다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는 Hotelling's $T^2=12.96$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_{3,403}=4.32, p<.01$). 이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추후검증으로 종속변인의 어떤 하위요인에서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성별에 대한 판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성별에 대한 판별분석결과 한 개의 유의한 함수가 산출되었다. 유의도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제1 판별함수의 $Wilk's\ Lambda=$

.969로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계수는 판별함수상의 점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변수가 가장 많이 기여했는지를 알려주는 것으로 표준화계수가 크면 클수록 그 변수의 기여도나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볼 때, 전통적 동기 요인(1.13)이 집단분리에 크게 기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두 집단중심점(group centroid)을

표 3. 부모됨의 동기의 성별 간 차이를 판별하는 판별함수의 표준화계수

변수	표준화계수
	성별 함수 1
정서적 동기	-.24
전통적 동기	1.13
혈연유대적 동기	-.13

살펴보면 남자대학생은 .17이고 여학생은 -.18로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전통적 동기에서 차이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부모역할인식

대학생들의 성별에 따라 부모역할인식 하위 요인군에서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다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는 Hotelling's $T^2=38.07$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_{12,394}=3.10, p<.001$). 이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추후검증으로 종속변인의 어떤 하위요인에서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성별에 대한 판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성별에 대한 판별분석결과 한 개의 유의한 함수가 산출되었다. 유의도 검증결과

표 4. 부모역할인식의 성별 간 차이를 판별하는 판별함수의 표준화계수

변수	표준화계수
	성별 함수
사회성발달도모	-.202
인지발달도모	.416
정서적안정감	.131
규범교육	.010
신체발달도모	-1.216
위생상태점검	.382
생존능력	.056
건강관리	-.097
물리적환경	.519
정서적육구다루기	.375
사회생활참여	-.058
가족공동체의식고취	.074

를 살펴보면, 제1 판별함수의 *Wilk's Lambda* = .914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계수를 근거로 하여 살펴보면, 신체 발달 도모 요인(-1.22), 물리적 환경요인(.52), 인지발달도모 요인(.42)이 집단분리에 크게 기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두 집단중심점(group centroid)을 살펴보면 남학생은 -.30이고 여학생은 .32로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차이가 뚜렷함을 알 수 있다.

2. 대학생의 부모와의 애착²⁾과 부모됨의 동기 및 부모역할인식 간의 관계

부모와의 애착특성과 부모됨의 동기 및 부모역할인식 간의 관계

우선 종속변인들 간의 관계성을 살펴보기 위해³⁾ 대학생의 부모됨의 동기와 부모역할인식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부록 1> 참조), 부모됨의 동기 총점은 부모역할인식의 모든 하위요인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18 \sim .33, p<.001$) 부모역할인식 총점과도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r=.30$,

2) 안정 애착은 어린 시절 부모가 따뜻하고 반응적인 양육을 했다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하며 회피 애착은 부모가 냉담하고 거부적인 양육을 했다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하고 저항 애착은 부모가 비일관적인 양육을 했다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강진경과 최혜경, 2001; Hazan & Shaver, 1987; Collins & Read, 1990).

3) 정준상관분석 시, 부모됨의 동기와 부모역할인식을 종속변인으로 놓기 위해서는 이 둘 간의 적절한 상관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에 앞서 종속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p<.001$). 부모됨의 동기 중 정서적 동기($r=.33$, $p<.001$)와 혈연유대적 동기($r=.34$, $p<.001$)가 부모역할인식 총점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됨의 동기 중 정서적 동기와 혈연유대적 동기 요인은 부모역할인식의 모든 하위요인과도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에 비하여 전통적 동기 요인은 부모역할인식의 하위요인 중 가족공동체 의식 고취, 사회생활참여, 신체발달 도모 요인 과만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대학생의 부모와의 애착특성과 부모됨의 동기 및 부모역할인식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표상은 부모됨의 동기 및 부모역할인식 총점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부모됨의 동기 및 부모역할인식의 모든 하위요인 과도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어린 시절 부모가 따뜻하고 반응적이었다고 지각하는 대학생일수록 부모역할로 자녀의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규범을 가르치고 가족공동체 의식을 높이며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인지발달을 도모하는 등의 역할을 강조하고 정서적이고 혈연적 유대를 강화하며 전통적인 이유에서 자녀를 갖고자 하는 동기가 강하다.

아버지와 회피애착특성은 부모됨의 동기 총점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부모됨의 동기 하위요인에 있어서는 정서적 동기와 혈연유대적 동기에 있어 아버지의 회피애착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어린 시절 아버지가 냉담하고 거부적이었다고 지각할수록 전반적으로 부모가 되고자 하는 동기가 약하고 특히 정서적인 이유에서 혹은 혈연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이유로 부모가 되고자 하는 동기가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와의 회피 애착특성은 부모됨의 동기 하위요인 중 정서적 동기만이 회피애착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어린 시절 어머니가 냉담하고 거부적이었다고 지각하는 대학생일수록 정서적이고 이타적인 이유에서 부모가 되고자 하는 동기가 약하다.

또한 부모와의 회피애착특성은 부모역할인식 총점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부모역할인식의 모든 하위요인과도 유의한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냉담하고 거부적이었다고 지각하는 대학생일수록 자녀의 정서적인 욕구를 다루어주고 규범을 가르치고 가족공동체 의식을 높이며 사회성 및 인지발달을 도모하는 것이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어린 시절 아버지가 냉담하고 거부적이었다고 지각하는 대학생일수록 자녀에게 가족공동체 의식과 규범을 가르치고 자녀의 정서적 욕구를 다루어주며 사회성 및 인지발달을 도모하는 것이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와의 저항애착특성은 부모역할인식의 몇몇 하위요인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어머니의 경우 부모역할인식의 하위요인 중 인지발달 도모, 규범교육, 정서적 욕구 다루기, 가족공동체의식고취 요인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아버지의 경우 가족공동체의식고취 요인만이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비일관적으로 양육했다고 지각할수록 자녀의 인지발달을 도모하거나 규범을 가르치고 정서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가족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것이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버지가 비일관적으로 자신을

표 5

표 6. 부모와의 애착 하위변인군과 부모됨의 동기 및 부모역할인식 간의 정준상관관계 분석

		예측변인군					
		어머니 안정	어머니 회피	어머니 저항	아버지 안정	아버지 회피	아버지 저항
제1정준 변량 함수	W	-.44	.40	-.14	-.31	.40	-.22
	L	-.69	.70	.21	-.61	.65	.11
	L ²	.47	.49	.04	.37	.42	.01
	% ΣL^2	26.11	27.22	2.22	20.55	23.33	.55
		준거변인군					
		부모됨			부모역할		
		정서적 동기	전통적 동기	혈연유대적 동기	사회성발달 도모	인지발달 도모	
제1정준 변량 함수	W	-.54	.09	.02	-.06	-.01	
	L	-.70	-.18	-.53	-.64	-.62	4.93
	L ²	.49	.03	.28	.40	.38	
	% ΣL^2	9.93	.60	5.67	8.11	7.70	
		준거변인군					
		부모역할					
		정서적 안정감	규범 교육	신체발달 도모	위생상태 점검	생존 능력	
제1정준 변량 함수	W	.12	-.29	-.06	-.11	.30	
	L	-.54	-.74	-.56	-.57	-.40	4.93
	L ²	.29	.54	.31	.32	.16	
	% ΣL^2	5.88	10.95	6.28	6.49	3.24	
		준거변인군					
		부모역할					
		건강 관리	물리적 환경	정서적 욕구 다루기	사회생활 참여	가족공동체 의식고취	
제1정준 변량 함수	W	-.02	-.07	-.37	.24	-.32	
	L	-.53	-.47	-.75	-.41	-.72	4.93
	L ²	.28	.22	.56	.16	.51	
	% ΣL^2	5.68	4.46	11.36	3.24	10.34	

대했다고 지각할수록 가족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것이 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대학생의 부모와의 애착특성과 부모됨의 동기 및 부모역할인식 간의 관계를 보다 통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즉 대학생의 부모됨의 동기 및 부모역할인식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부모와의 애착 요인이 무엇이며, 대학생의 부모됨의 동기 및 부모역할인식에 의해 가장 잘 예측되어지는 부모와의 애착 요인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대학생의 부모와의 애착특성을 예측변인 군으로 하고 부모됨의 동기 및 부모역할인식을 준거변인 군으로 하여 정준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6개 정준함수 중 1개의 정준함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제1정준함수(Wilk's $\Lambda = .651$, $p < .001$)에 대해 정준상관관계를 자세히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6에 제시된 제1정준변량함수의 정준부하치에 대해 살펴보면 예측변인군에서 가장 부하치가 높은 변인은 어머니와의 회피애착특성(.70), 어머니와의 안정애착특성(-.69), 아버지와의 회피애착특성(.65)과 아버지와의 안정애착특성(-.61)이었으며 준거변인군 중 부하치가 가장 높은 변인은 부모역할 중 정서적 욕구 다루기(-.75), 규범교육(-.74), 가족공동체 의식 고취(-.72), 사회성발달 도모(-.64), 인지발달 도모(-.62)와 부모됨의 동기 중 정서적 동기(-.70)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측변인군에서 어머니와의 회피애착특성, 어머니와의 안정애착특성, 아버지와의 회피애착특성과 아버지와의 안정애착특성은 각각 군내변량의 27.22%, 26.11%, 23.33%와 20.55%를 설명하였으며, 준거변인군에서는

정서적 욕구 다루기가 11.36%, 규범교육이 10.95%, 가족공동체 의식 고취가 10.34%, 사회성발달 도모가 8.11%, 인지발달 도모가 7.70%, 정서적 동기가 9.93%를 설명하였다. 이는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어린 시절 부모와의 따뜻하며 민감한 양육과 거부적인 양육이 부모됨의 동기 및 부모역할인식을 잘 예측할 수 있으며 특히 부모됨의 동기 및 부모역할인식 중 자녀의 정서적 욕구 다루기, 규범교육, 가족공동체 의식 고취, 사회성발달 도모, 인지발달 도모와 부모됨의 정서적 동기를 잘 예측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즉, 어린 시절 아버지가 냉담하고 거부적이었다고 지각하는 대학생일수록 부모역할로서 자녀의 정서적 욕구를 다루어주고 규범 및 가족공동체 의식을 가르치며 사회성발달 및 인지발달을 도모하는 것이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정서적인 이유나 이타적인 이유로 부모가 되고자 하는 동기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조적으로 어린 시절 부모가 따뜻하고 반응적이었다고 지각하는 대학생일수록 자녀의 정서적 욕구를 다루어주고 규범 및 가족공동체 의식을 가르치며 사회성발달 및 인지발달을 도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정서적인 이유나 이타적인 이유로 부모가 되고자 하는 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의 부모됨의 동기 및 부모역

할인식의 경향을 살펴본 결과, 대학생들의 부모됨의 동기는 혈연유대적 동기와 정서적 동기에 비해 전통적 동기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 사회에 들어서 부모됨의 동기에 있어 전통적이고 규범적인 동기가 낮은 것은 기존 연구결과들(유계숙, 정현숙, 2002; 유안진, 신양재, 1993; Neal, Groat, & Wick, 1989)과 일치하는 것으로 청년들이 부모됨을 선택함에 있어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점점 더 강해짐을 의미한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부모가 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일차적인 유대관계 형성과 사랑이라는 선행 연구결과(Langdridge et al., 2000; Langdridge et al., 2005)와 현대사회로 오면서 가족 내의 사랑의 표현, 의사소통, 상대방에 대한 존경 등 우애적 관계를 더 중요시한다는 연구결과(Towel & Kasl, 1996)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한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에서는 혈연유대강화적인 동기가 높지 않고 혈연유대강화적인 동기는 정서적 동기와 부적인 상관을 보였으나(유계숙, 정현숙, 2002) 본 연구에서는 혈연유대강화적인 동기가 높게 평가되었고 정서적 동기와의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현재 한국사회는 다양한 가치관의 혼재로 인해 가족가치관에서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지만 여전히 가족의 혈연관계를 중시하고 혈연 간의 끈끈한 유대관계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가족내 세대간 가족가치관에 대한 연구에서 아동세대들이 부모세대에 비해 전통적인 측면에서의 정상가족에 대한 지향이 강하게 나타나고(정옥분, 정

순화, 김경은, 박연정, 2007) 청소년들이 가족의 혈연적 연대성이나 유대성을 강하게 지지한다(김순옥, 류점숙, 1984)는 연구결과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여전히 젊은 세대에서도 혈연적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부모가 되기를 원한다는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대학생들은 부모역할 중 자녀의 정서적 욕구 다루기를 가장 높게 평가하였고 자녀의 사회생활참여를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즉, 대학생들이 자녀양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자녀의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고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자녀의 사회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이는 청년기에 놓인 자신의 모습이 투영된 것일 수 있다. 과도한 입시 경쟁 속에서 성장해오면서 이들은 학업이나 인지적 성공에 대한 피드백은 과하게 받는 반면 자신의 정서적인 요구에 대한 피드백은 적절히 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머리는 있으나 마음은 없는 불균형적인 모습을 갖게 되었다고 느끼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청년들은 대학생이 되어 스스로 충분히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반면, 부모들은 한 두명 밖에 되지 않는 자녀들에게 일상생활이나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잦은 충고나 간섭을 함에 따라 대학생들은 부모로부터 독립된 생활에 대한 요구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미래의 부모들 또한 자녀에게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해주는 것이 중요한 부모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측면은 정서적인 관계(정옥분 외, 2007; Olson & DeFrain, 2003)라는 결

과와 맥을 같이 한다.

둘째, 성별에 따른 대학생들의 부모됨의 동기 및 부모역할인식에서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에 따라 부모됨의 동기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부모됨의 동기에 있어 전통적 동기가 강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가계의 연속성, 전통적 동기 등이 높게 나타난다는 선행 연구결과(김은주, 2006; 유계숙, 정현숙, 2002; 유안진, 신양재, 1993; Morahan-Martin, 1991; Neal et al., 1989)와 일치한다. 이는 남성들의 경우 전통적인 관점에서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동기가 높은 반면 여성들은 보다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이유에서 자녀를 가지고자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출산과 자녀양육의 부담이 큰 여성들의 부모됨에 대한 태도나 동기를 긍정적으로 전환시켜주기 위한 개인적·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부모역할인식은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영아기에서 고등학교 시기까지 각 단계별로 어머니와 아버지를 대상으로 부모역할에 대한 개념과 수행정도를 알아본 선행 연구결과(나종혜, 2005)와 일치한다. 이는 여성취업률의 증가로 인해 자녀양육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차이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Woodworth, Belsky, & Crinic, 1996), 자녀양육에서 아버지의 역할 참여가 점점 증가되고 있음(Lamb, 1999; Pleck, 1987)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녀양육의 주책임자는 여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성별에 따른 부모역할 하위요인에서의 차이

를 살펴보면,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부모역할인식에 있어 인지발달 도모, 정서적 안정감, 위생상태점검, 물리적 환경, 정서적 욕구 다루기 요인을 높게 지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판별분석결과, 신체발달도모 요인, 물리적 환경, 인지발달 도모 요인이 성별 집단분리에 크게 기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학생들의 경우 자녀양육에 있어 신체발달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반면, 여학생들은 물리적 환경 및 인지발달 요인을 강조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역할의 차이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아버지의 경우 어머니에 비해 자녀의 일상적인 양육에는 덜 참여하지만 신체적인 놀이 활동에는 더 많이 참여하는 것(Russell & Russell, 1987)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가 자녀양육에 대한 만족감과 자녀와의 친밀감을 높이며(Sagi, Lamb, Shoham, Dvir, & Lewkowicks, 1982) 자녀의 자신감, 자아존중감, 언어적 능력(Deutsche, Servis, & Payne, 2001), 자녀의 긍정적인 경쟁능력(Paquette, Carbonneau, Dubeau, Bigras, & Tremblay, 2003)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아버지에게 혹은 아버지가 될 사람들에게 자녀의 발달 및 양육에 대한 지식, 자녀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방법 등을 가르쳐서 남성들이 양육에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대학생의 부모와의 애착특성과 부모됨의 동기 및 부모역할인식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에 앞서 부모됨의 동기와 부모역할인식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모됨의 동기 총점은 부모역할인식의 모든 하위요인과 정적

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됨의 동기가 높을수록 부모역할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모 및 아동세대의 가족가치관 중에서 자녀관이 부모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가장 잘 예측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정옥분 외, 2007)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자녀를 갖고자 하는 동기가 강한 사람들일수록 미래의 부모역할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부모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보다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볼 때, 부모가 되기 전에 부모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준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즉, 자녀의 성장에 필요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주고 보다 적응력 있게 키워 나가는 데에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은 부모가 되기 이전의 예비부모를 대상으로 할 때 보다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녀의 성장과정을 보다 잘 이해함으로써 부모는 자녀의 욕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충족시켜 줄 수 있으며, 부모-자녀관계에서 보다 만족스러운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대학생의 부모와의 애착특성과 부모됨의 동기 및 부모역할인식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모와의 안정애착특성은 부모됨의 동기 및 부모역할인식 총점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부모됨의 동기 및 부모역할인식의 모든 하위요인과도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어린 시절 부모가 따뜻하고 반응적이었다고 지각한 대학생들은 부모가 되고자 하는 동기가 강하며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와의 안정된 관계 속에서 부모로부터 지지와 격려를 받으며 자라온 대학생일수록 결혼 후 자녀를 갖고자 하는 동기가 강할 뿐 아니라 자녀를 바람직하게 키우기 위해 필요한 부모역할에 대해 잘 깨닫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어린 시절 부모와 안정 애착을 형성한 성인들은 성인기의 주요한 발달과업인 낭만적 애착관계를 안정되게 형성하고(강진경, 최혜경, 2001; Hazan & Shaver, 1987) 이후 그들의 자녀와도 안정애착을 형성하며 지지적인 양육을 제공한다(Pearson, Cohn, Cowan, & Cowan, 1994; van IJzendoorn, 1992; Ward & Carlson, 1995)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이들은 따뜻하고 지지적인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부모됨이나 자녀양육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부모와의 회피애착특성은 아버지의 경우 부모됨의 동기 총점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부모됨의 동기 하위요인에 있어서는 정서적 동기와 혈연유대적 동기에 있어 아버지의 회피애착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냉담하고 거부적이었다고 지각하는 대학생일수록 자녀의 정서적인 욕구를 다루어주고 규범을 가르치고 가족공동체 의식을 높이며 사회성 및 인지발달을 도모하는 것이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어린 시절 아버지가 냉담하고 거부적이었다고 지각하는 대학생일수록 자녀에게 가족공동체 의식과 규범을 가르치고 자녀의 정서적 욕구를 다루어주며 사회성 및 인지발달을 도모하는 것이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나 어머니와 거부적이고 냉담한 관계를 형성한 대학생들은 결혼 후 자녀를 갖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며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특히 자녀와 정서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예측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 회피적인 애착을 형성한 성인들은 친밀한 친구들과도 상호지지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Wilson et al., 2000) 대인관계에서 불안정성을 보여 애인과의 오랜 기간 사귀는 것을 힘들어하며(Schmitt, 2005) 부모가 되고자 하는 욕구가 낮으며 결혼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뿐 아니라(Rholes, Simpson, & Friedman, 2006) 이후에 부모가 되더라도 자녀들과 정서적으로 분리되고 사랑을 느끼기 힘들 것(Rhole et al., 1997)이라고 보고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어린 시절 부모와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과 부모와의 애착관계에 대해 인식하도록 도와주고 관계상의 어려움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게 함으로써 부모와의 관계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더불어 이들의 사회정서적인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부모됨 및 자녀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부모와의 저항애착특성은 부모역할인식의 하위요인과 부정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어머니의 경우 부모역할인식의 하위요인 중 인지발달 도모, 규범교육, 정서적 욕구 다루기, 가족공동체 의식 고취 요인과 부정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아버지의 경우 가족공동체 의식 고취 요인만이 부정 상관관계를 보였다. 부모

로부터 비밀관적인 양육을 받은 대학생들은 특히 가족의 공동체 의식(예를 들면, 즉 모든 가족이 함께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수행하는 것 등)을 키워주는 것이 덜 중요하다고 느낀다는 점은 흥미롭다. 이는 부모의 일관성없는 훈육과 양육 속에서 자녀는 점차적으로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며 부모를 멀리하게 되어 함께 모여서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수행하는 것이 그다지 중요하다고 느끼지 못하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대학생들의 부모와의 애착특성과 부모됨 및 부모역할 간의 관계에 대한 정준상관분석결과, 대학생의 부모와의 애착관계 중 어머니와의 회피애착특성과 안정애착특성, 아버지와의 회피애착특성과 안정애착특성이 부모됨의 동기 및 부모역할인식을 잘 예측할 수 있으며 특히 부모됨의 동기 및 부모역할인식 중 자녀의 정서적 욕구 다루기, 규범교육, 가족공동체 의식 고취, 사회성 발달 도모, 인지발달 도모와 부모됨의 정서적 동기를 잘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회피애착특성이 부모됨이나 부모역할을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회피애착특성이 강한 대학생의 경우 어린시절 부모로부터 냉담함이나 무관심, 거부 등을 당한 경험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우리나라 아버지들의 경우 마음이 있어도 제대로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한다. 아버지 세대의 이런 고충은 아버지의 어린 시절 부모와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 것이고 이러한 부적절한 양육이 세대를 걸쳐 전이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참고 절제하는 세대와 자유롭게 표현하는 세대 간의 차이, 즉 부모세대가 살아온 문화와 현재 청소년들이 살아온 문화와의 차이로 인해 이 세대들 간의 차이는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간의 시대·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를 통해 또한 이들 간의 상호교류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부모자녀 간의 유대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의 애착특성뿐 아니라 아버지와의 애착특성 또한 이후의 부모됨이나 부모역할인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진경과 최혜경(2001)의 연구에서는 주양육자인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한 내적 표상만이 청소년기 자아에 대한 내적 작동모델에 영향을 미치고 성인기의 낭만적 애착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내적 표상이 대학생들의 이후 부모됨이나 부모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자녀양육에 있어 어머니 역할이 지대하기는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연구들(Deutsche et al., 2001; Paquette et al., 2003; Sagi et al., 1982)에서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자녀들의 성취수준이 높아지고 자녀의 긍정적인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과 효과에 대해 널리 알리고 아버지들의 자녀양육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프로그램들이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예비부모교육을 통해 자신의 성장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자신에 대한 생각이나 부모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킴으로써 부모기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예비부모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연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린 시절 부모와의 애착은 이후의 적응 및 발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기에 부모와의 애착관계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기존의 개발된 다른 척도는 면접법으로 이루어져 있어 대규모의 표본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시행상의 어려움이 있을뿐더러 결과적으로는 애착유형으로 범주화되는 제한점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Hazan과 Shaver(1987)의 척도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각각의 요인에 대해 장문의 한 문항으로 측정한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성인기 애착관계를 보다 신뢰롭게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부모됨이나 부모역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 부모와의 애착관계에 초점을 두었지만 이외에도 자존감이나 자아정체감과 같은 대학생들의 개인심리적인 요인들도 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생들의 이후 부모됨이나 부모역할에 관련된 변인들에 대한 연구들이 상당히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미래의 부모들이 부모됨이나 부모역할수행에 긍정적인 태도나 가치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진경 · 최혜경 (2001). 아동기의 부모에 대한 내적 표상, 청소년기의 자아개념, 성인기의 낭만적 애착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3), 1-24.
- 김순옥 · 류정숙 (1984).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가족가치관에 관한 실증적 연구. *전남대 논문집*, 73-101.
- 김은주 (2006). 여대생의 부모기 인식, 부모됨 동기 및 부모역할 동의. *아동간호학회지*, 12(1), 89-95.
- 나종혜 (2005). 자녀의 발달단계에 맞는 새로운 부모역할 제안: 변화하는 부모역할 개념과 수행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14(3), 411-421.
- 방은령 (1986). 부모역할에 대한 책임의식. *한국아동학회지*, 7(2), 33-53.
- 유계숙 · 정현숙 (2002). 부모됨의 의미와 동기에 대한 청년의 인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3), 39-47.
- 유안진 · 신양재 (1993). 대학생의 부모됨 동기 및 부모역할개념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4), 141-155.
- 정은숙 (2002). 대학생의 부모됨에 대한 인식조사. *경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정옥분 · 정순화 (2007). *예비부모교육*. 서울: 학지사.
- 정옥분 · 정순화 · 김경은 · 박연정 (2007). 가족 가치관과 부모역할인식에 관한 연구-세대 간 차이를 중심으로. *가족관계학회지*, 12(2), 215-149.
- 진미경 (2008). 어머니 애착 표상 및 양육행동과 영아 애착 유형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1(1), 31-42.
- Callan, V. J., & Gallois, C. (1983). Perceptions of having children: are daughters different from their mo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5, 607-612.
- Collins, N. L.,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644-663.
- Deutsche, F. M., Servis, L. J., & Payne, J. D. (2001). Paternal participation in child care and its effects on children's self-esteem and attitudes toward gendered roles. *Journal of Family Issues*, 22, 1000-1024.
- Erikson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Grosset & Dunlap.
- Fawcett, J. T. (1983). Perception of the value of children: satisfaction and cost. In R. A. Bulatao & R. D. Lee(Eds.), *Determinants of fertility in developing countries*(Vol. 1). New York: Academic Press.
- Feeney, B. C., & Collins, N. L. (2004). Interpersonal safe heaven and secure base caregiving processes in adulthood. In W. S. Rholes & J. A. Simpson(Eds.), *Adult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implications*(pp.300-388). New York: Guilford.

- Fonagy, P. (2001). *Attachment theory and psychoanalysis*. New York: Other Press.
- Friedman, D., Hechter, M., & Kanazawa, S. (1994). A theory of the value of children. *Demography*, 31(3), 375-401.
- George, C., Kaplan, N., & Main, M. (1985). *An adult attachment interview: Interview protocol*.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 Gerson, J. J., & Berman, L. S. (1991). The value of having children as an aspect of adult development.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2(3), 327.
- Gilbert, L. A., & Harris, G. R. (1983). Perception of parental role responsibilities among working people: Development of comprehensive measur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5(1), 203-212.
- Groat, H. T., Giordano, P. G., Cernkovich, S. A., Pugh, M. D., & Swinford, S. P. (1997). Attitude toward childbearing among young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9, 568-581.
- Hazan, C., & Shaver, P. R. (1987). Love and work: An attachment-theoretical perspec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270-280.
- Hazan, C., & Shaver, P. R. (1988). *The Revised Hazan & Shaver(1987): Original psychometric information from 1988*. Adult Attachment Lab.
- Lamb, M. E. (1999).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 in 'nontraditional' families*. Mahwah, NJ: Erlbaum.
- Lampic, C., Svanberg, A. S., Karlström, P., & Tydén, T. (2006). Fertility awareness, intentions concerning childbearing, and attitudes towards parenthood among female and male academics. *Human Reproduction*, 21(2), 558-564.
- Langdridge, D., Connolly, K., & Sheeran, P. (2000). Reason wanting a child: A network analytic study. *Journal of Reproductive and Infant Psychology*, 18(4), 321-338.
- Langdridge, D., Sheeran, P. & Connolly, K. (2005). Understanding the reasons for parenthood. *Journal of Reproductive and Infant Psychology*, 23(2), 121-133.
- Levine, R. A. (1988). Human parental care: Universal goals, cultural strategies, individual behavior. In R. A. Levine, P. M., Miller, M. M. West(Eds.), *Parental behavior in diverse societies.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pp. 3-12). San Francisco: Jossey-Bass.
- Morahan-Martin, J. (1991). Consider the children: Is parenthood being valued? *Psychology Record*, 41, 303.
- Muller, R. T., Hunter, J. E., & Stollak, G. (1995).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corporal punishment: A comparison of social learning and temperament models. *Child Abuse and Neglect*, 19, 1323-1335.
- Neal, G., Groat, H., T., & Wick, J. W. (1989). Attitudes about having children: A study of 600 couples in the early years of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1, 313-328.

- Olson, D. H., & DeFrain, J. (2003). *Marriage and families* (4th ed.) New York : McGraw-Hill.
- Paquette, D., Carbonneau, R., Dubeau, D., Bigras, M., & Tremblay, R. E. (2003). Prevalence of father-child rough-and-tumble play and physical aggression in preschool children.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y of Education*, 18(2), 171-189.
- Pearson, J. L., Cohn, D. A., Cowan, P. A., & Cowan, C. P. (1994). Earned and continuous security in adult attachment: Relations to depressive symptomatology and parenting styl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6, 359-373.
- Pleck, J. H. (1987). American fathering in historical perspective. In M. S. Kimmel(Ed.), *Changing men: New directions in research on men and masculinity*. Beverly Hills, CA: Sage.
- Rindfuss, R. R. (1991). The young adult years: Diversity, structural change, and fertility. *Demography*, 28(4), 493-512.
- Rholes, S. W., Simpson, J. A., Blakely, B. S. (1995). Adult attachment styles and mother's relationships with their young children. *Personal Relationships*, 65, 357-385.
- Rholes, S. W., Simpson, J. A., Blakely, B. S., Lanigan, L., & Allen, E. A. (1997). Adult attachment styles, the desire to have children, and working models of parenthood. *Journal of Personality*, 65, 357-385.
- Rholes, S. W., Simpson, J. A., Campbell, L., & Grich, J. (2001). Adult attachment and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 421-435.
- Rholes, S. W., Simpson, J. A. & Friedman, M. (2006). Avoidant attachment and the experience of parent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2(3), 275-285.
- Russell, G., & Russell, A. (1987). Mother-child and father-child relationships in middl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58, 1573-1585.
- Sagi, A., Lamb, M. E., Shoham, R., Dvir, R., Lewkowicks, K. S. (1982). Parent- infant interaction in families on Israeli Kibbuzim.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8, 273-284.
- Schmitt, D. P. (2005). Is short-term mating the maladaptive result of insecure attachment? A test of competing evolutionary perspectiv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6), 747-768.
- Schoen, R., Astone, N. M., Kim, Y. J., & Nathanson, C. A. (1999). Do fertility intentions affect fertility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1, 790-799.
- Secombe, K. (1991). Assessing the cost and benefits of children: Gender comparisons among childfree husbands and wiv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3, 191-202.
- Tower, R., & Kasl, S. (1996). Gender, marital closeness, and depressive symptom in elderly couple. *The Journal of Gerontology*, 51(3), 115-129.
- van IJzendoorn, M. H. (1992).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parenting: A review of studies in nonclinical populations.

- Developmental Reviews*, 12, 76-99.
- Ward, M. J. & Carlson, E. A. (1995). Association among adult attachment representations, maternal sensitivity, and infant-mother attachment in a sample of adolescent mothers. *Child Development*, 66, 69-79.
- Wilson, C. L., Simpson, J. A., & Rholes, S. W. (2000). *Attachment orientation and support giving*. Poster presented at Midwestern Psychological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 Chicago.
- Woodworth, S., Belsky, J., & Crnic, K. (1996). The determinants of fathering during the child's second and third years of life: A developmental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8, 679-692.
- 1 차원고접수 : 2008. 07. 02.
수정원고접수 : 2008. 12. 04.
최종게재결정 : 2008. 12. 05.

Attachment to parents, motives for parenthood and perceptions of parental roles amongst Korean undergraduate students- A working model

Ock-Boon Chung Jung-Ha Lim Soon-Hwa Chung Kyoung-Eun Kim Youn-Jung Park

Kore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in university student's motives for future parenthood and the perception of parent roles according to gender and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and among the issues of attachment to parents in childhood, motives for parenthood and the perceptions of parental roles. A scale measuring the perceptions of parenting/caregiving styles (Hazan & Shaver, 1987), motivations for parenthood (You & Chung, 2002), and perceptions of parental role responsibilities (Gilbert & Harris, 1983) was administered to 432 university students around the capital city.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Cronbach's α tests, means, standard deviations, One-way MANOVAs, Multiple Discriminant Analyses, Pearson's Correlations, and Canonical Correlation Analyse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y gender in motives for parenthood and the perceptions of parental roles. Male university students exhibited higher 'traditional motives for parenthood' than female university students. Female university students placed greater importance on 'providing for the physical environment' and 'promoting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in parental roles than male university students. 2. The university student's attachment levels to their parents were presumably associated with motives for parenthood and the perceptions of parental roles. Secure attachment to mothers, avoidant attachment to mothers, secure attachment to fathers, and avoidant attachment to fathers were powerful predictors of university student's motives for parenthood and their perceptions of parental roles. University students who remembered their parents as being warm had stronger motivations to become parents themselves and had positive perceptions of parental roles. On the other hand, those who perceived their parents as having been cold and rejecting in their childhood had weaker motivations to become parents themselves and had lower perceptions of parental roles such as 'healing emotions' and 'teaching norms and social values'.

Key words : parenthood, motives for parenthood, parental role, attachment, working model

부록 1. 부모됨의 동기와 부모역할인식 간의 상관관계

	사회성 발달 도모	인지 발달 도모	정서적 안정감	규범 교육	신체 발달 도모	위생 상태 점검	생존 능력	건강 관리	물리적 환경	정서적 욕구 다루기	사회 생활 참여
정서적 동기	.291***	.275***	.257***	.319***	.254***	.225***	.175**	.171**	.182**	.289***	.255***
전통적 동기	.019	.014	.064	.071	.099	.063	.005	.047	-.033	.120*	.079
협연 유대적 동기	.283***	.235***	.281***	.333***	.271***	.209***	.165**	.209***	.165**	.257***	.238***

* $p < .05$, ** $p < .01$, *** $p < .001$